

공동체 소식



대림 제3주일

아버지, 오실 분을 기다리는 저희를 사랑의 힘으로 지켜 주시어,
저희가 한결같은 인내로 믿음의 열매를 맺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쁜 소식을 받아들이게 하소서.



12월 기도지향

- 김호원(요한), 박정자(수산나) 가정
- 정준구(파비아노), 박해정(카타리나) 가정

대림시기

대림시기는 ‘예수 성탄 대축일’ 전의 4주간을 가리키는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리는 성탄 대축일을 준비하면서 다시 오실 구세주를 기다리는 시기입니다. ‘대림’(待臨)이라는 말은 ‘도착’을 뜻하는 라틴 말 ‘앗벤투스’(Adventus)에서 온 것입니다. 이 대림 시기의 첫 주일부터 한 해의 전례 주년이 시작됩니다. 구세주이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실 것을 기다리며, 회개와 속죄의 생활로 그분을 맞이합니다.

대림 특강

- 일시 : 12/15(일) 중심미사
- 주제 : “우리는 무엇을 믿는가?”
- ☞ 오클라호마 공동체의 오정 보나벤투라 신부님(미리내 천주성삼 수도회)께서 특강을 해 주시겠습니다.

성탄 전례

- 구유 예절 및 성탄 밤미사 : 12/24(화) 오후 7시
- 성탄 대축일 미사 : 12/25(수) 오전 11시

구역별 판공성사

- 12/19(목) : 4구역, 박희영 카타리나 자매님 덕
- ☞ 오후 7시까지 해당 가정에 모여 고해성사가 진행되는 동안 ‘묵주기도’를 바치겠습니다. 대림시기이므로 조출한 다과 후, 모임을 마치겠습니다.

견진 대상자 모집

내년 3월 28일(금) 홀리트리니티 본당에서 견진성사가 있을 예정입니다. 세례를 받은 중학생 이상이면 누구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례분과에 신청 바랍니다.

기타

- 오늘 중심미사 후, 평협회의 있습니다.
- 12/17(화) 저녁미사는 채플 사용 관계로 없습니다.
- ‘매일미사’ 책 신청 받습니다. 배송료 포함, 1년 구독료 60불입니다.
- 예비자 집중 교리는 부활 대축일로 연기하겠습니다.

전례 성가

시 작	예 목	성 체	마 침
92	221	153/168	88

주일미사 복사

	향 복사	시중 복사
금주	차호섭(요 셉)	안광민(야 고 보)
	차서은(세라피나)	안광희(크리스토퍼)
차주	고영방(스테파노)	문석찬(요 셉)
	고평원(프란치스코)	문호진(안토니오)

전례 봉사자 및 독서자

	해설자	제1독서
		제2독서
금주	최은미(아 네 스)	문석찬(요 셉) 백문주(엘리사벳)
차주	김주연(세실리아)	김태중(예레미아) 김시연(엘리사벳)

애찬 봉사자

금주	백문주, 최은미, 박정옥, 안이, 박정자
차주	김명은, 김화년, 안현숙, 박옥희, 전현교

헌금 봉사자

금주	문석찬(요 셉), 최은미(아 네 스)
차주	김태중(예레미아), 정수한(베 드 로)

우리들의 정성

	참례인원	헌금	교무금
12/1	82명	323불	2,440불
김화년, 양경직, 최복순, 안경혜, 박동희, 정준구, 홍순익, 차호섭, 현교정, 정수한, 문석찬, 김태중, Mr. 골만 감사헌금 (총 12가구)			

미사시간
주 일: 11:00 AM
화요일: 7:00 PM
목요일: 10:00 AM

고해성사
매 미사 30분전

예비자교리
주일 10:00 AM

캔사스 한인 천주교회

Korean Catholic Community of Kansas
9130 Pflumm Rd. Lenexa, KS 66215
(913)563-7896 www.kckcatholic.org

주보 편집 : 김원철 바실리오 412.576.5075 willkim777@gmail.com

주임신부 주영길 토마스
M: 913.633.1273
jooyk88@gmail.com
회장 안동현 프란치스코
M: 913.219.8066
Tonghyun.An@gmail.com
부회장 정수한 베드로
M: 913.707.8142
scnn8@hotmail.com
재무 차호섭 요셉
M: 614.598.7908
hscha72@gmail.com



오늘의 전례

오늘은 대림 제3주일입니다. 주님께서 오시면 우리에게 다른 무엇보다도 이웃을 얼마나 사랑하며 살았는지를 물어보실 것입니다. 이웃에 대한 조건 없는 사랑이야말로 그분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가장 큰 뜻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길을 닦아 사람들을 주님께 이끌었던 요한 세례자처럼, 우리의 사랑으로 더욱 많은 이가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해야겠습니다.

성화해설

보라 하느님의 어린양
(디에릭 보우츠, 1462-1464년, 목재, 뮌헨 알테 피나코테크 미술관, 독일)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오실 날이 가까워졌음을 알리고, 이를 기뻐하기 위해 전통적으로 대림 제3주일인 오늘을 ‘환희의 주일’, ‘기쁨의 주일’이라 부릅니다. 하느님이신 분이 인간의 구원을 위해 가장 가난한 모습으로 세상에 오신 강생의 신비를 통해 하느님과 인간의 만남이 이루어졌습니다. (「생명의 복음」 102항) 이 만남으로 무엇보다도 바꿀 수 없는 인간 생명의 가치가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구세주 강생의 신비는 모든 인간 생명이 갖는 기쁨의 원천입니다.

지영현 시몬 신부 | 한국가톨릭미술가협회

제 1 독 서 : 이사 35,1-6ㄴ.10 < 하느님께서 오시어 너희를 구원하신다. >



주 님 - 저 희 를 구 하 러 오 소 - 서

- 주님께서는 언제나 신의를 지키시고, 억울한 사람들을 정의로 판단하시며, 굶주린 이에게는 빵을 주시도다. 주님께서는 사로잡힌 이를 풀어 주시도다. ◎
- 주님께서는 소경의 눈을 열어 주시며, 주님께서는 억눌린 이 일으켜 주시며, 주님께서는 의로운 이를 사랑하시도다. 주님께서는 나그네를 지켜 주시도다. ◎
- 주님께서는 고아와 과부를 길러 주시나, 악한 자의 길만은 어지럽게 하시도다. 주님께서는 영원히 다스리시리니, 시온아 네 하느님 세세에 계시도다. ◎

제 2 독 서 : 야고 5,7-10 < 여러분의 마음을 굳게 가지십시오. 주님의 재림이 가까웠습니다. >

- 복음환호송 : ◎ 알렐루야.
○ 주님의 영이 내 위에 내리셨다. 나를 보내시어 가난한 이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셨다. ◎

복 음 : 마태 11,2-11 < 오실 분이 선생님이십니까? 아니면 저희가 다른 분을 기다려야 합니까? >

쉐 마

“나에게 의심을 품지 않는 이 행복하다”



12월이 되면 예수회 수련원의 2년 차 수련자들은 긴장과 기대를 합니다. 수련 2년 중에 가장 기대되면서 어려운 실습을 하기 때문입니다. 바로 ‘무전도보순례’입니다. 일주일간 돈 한푼 없이 걸어서 성지를 찾아가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순례’입니다. 예수님께서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걸으셨고, 제자들을 그렇게 파견하셨던 모습 그대로 수련자들은 길을 나섭니다.

일주일 동안 수련자들은 자신이 가톨릭 수도회의 수련자임을 밝혀서는 안 되고, 돈을 구걸해서도 안 됩니다. 돈을 구걸해서 그것으로 밥을 사먹거나 잘 곳을 마련할 수 없습니다. 밥을 얻어 먹어야 하고, 재워주실 분을 찾아야 합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간절하고 절실하게 하느님께 매달릴 수 밖에 없는 시간입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실 썸에 저희 수련자들이 전국 곳곳에서 밥과 잠자리를 청하고 있을 것입니다. 이름 모르는 젊은이가 청할 때, 그 사람은 수련자가 아니라, 예수님 일 수 있다(마태오 25,31-46)고 생각해 보세요. 오늘이 자선주일이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그리스도의 모범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2004년 12월에 저도 일주일간 순례를 했습니다. 저는 좋은 사람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그래서 한 끼도 굶지 않았습니 다. 집을 쉽게 구할 수는 없었지만 한뼨잠 자지 않고, 따뜻한 분들께서 내어주신 그분들의 방에서 잠을 잘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기적이 아닐까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늘 요한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너희가 보고 들은 것’이 바로 이 기적일 것입니다.

잠자리를 내어주시면서, 밥을 차려주시면서 제게 이렇게 말씀들을 하십니다. “요즘이 어떤 세상인데 돈 한푼 없이 여행을 하나?” 그러면 저는 그분들께, “당신처럼 좋은 분들이 세상에 너무 많습니 다. 그래서 제가 며칠째 무전여행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당신께서 제게 밥을 주시고, 또 잠자리도 주시잖습니까!” 이렇게 말씀 드렸습니 다. 당신들께서 그렇게 자선을 베풀고, 사랑을 나누고, 당신들이 가진 작은 것을 아주 크게 나눠주시기 때문에 제가 아무 탈 없이 순례를 한다는 말씀을 드려도, 세상은 흥흥하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만약 그렇게 우리 세상이 삭막하고 인심이 없다면 어떻게 제가 일주일의 무전순례를

마쳤겠습니까? 세상은 너무나 따뜻했습니다. 눈보라가 매섭게 몰아치는 12월이었지만, 여러분이 제게 주셨던 그 따뜻한 밥에 담긴 사랑은 봄날 햇살보다 더 따뜻하게 제 마음에 담겼습니 다. 일주일 동안 저는 너무도 많은 따뜻한 예수님을 만났고, 그분들을 통해 하늘 나라를 느꼈고, 그분들께 하늘 나라를 지금 당신께서 만들고 계시다고 말씀 드렸습니다.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 네, 우리는 예수님을 기다립니다. 지극히 가난한 곳에 오셨던 어린 아기 예수님, 지극히 처참하게 돌아가신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가난, 여립, 고통을 우리는 어떻게 내 버려 두고 있습니까? 내 가난과 아픔을 이겨내기 위해 이웃에게 도와달라고 하고 있습니까? 내 이웃의 고통을 나는 알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 현실을 알지 못하고 참여하지 않고 산다면, 최후 심판의 날,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 날에 우리는 아무 할 말이 없을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왼쪽에서 있을 지, 오른쪽에서 있을 지는 오늘 우리 이웃을 어떻게 마주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의심하지 않고 내 이웃을 예수님으로 알고 대접할 때 우리는 행복해집니다. 하느님께서 잠시 우리에게 맡긴 그 재물을 사람들과 나눌 때 우리는 너무나 기쁩니다. 그 기쁨과 감동은 예수님께서 주십니다. 배고픔과 추위에 떠는 한 사람에게 해 준 것이 예수님께 해 준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기뻐할 수 있도록, 행복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서는 우리 앞에 가난하고 험벗고 추위에 떠는 모습으로 나타나십니다. 우리는 그 절호의 찬스를 잡으면 됩니다. 내 앞에 도움이 필요한 이웃이 왔을 때, 이건 바로 내가 행복할 수 있는, 하늘 나라를 느낄 수 있는 기회임을 잊지 마시고, 확실히 잡으세요. 그리고 바로 행동하세요.

눈을 크게 뜨고 기회를 찾아 다니세요. 바로 옆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의심의 여지 없이 예수님입니다. 따뜻한 밥 한 그릇 함께 나누세요.

- 예수회 김동일 신부 -

마중물

마음의 향아리

정신 의학자 린치(J. Lynch) 박사는 그의 명저 「깨진 마음(The Broken Heart)」에서 인간관계가 건강을 좌우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병의 원인에 대한 원시적 생각은 죄나 잘못된 행위로 보았고, 그 후 병균의 발견에 의하여 과학적인 원인을 말하게 되었는데, 재미있는 것은, 현대의학이 다시 옛적에 말하던 잘못된 행위가 병의 원인으로 말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마음의 상태가 몸에 미치는 영향을 강조한 것입니다.

린치 박사의 조사 내용 중 한 부분을 소개하면, 심장병은 조급함과 긴밀히 연결되었고, 참지 못하는 성격, 경제적 행위, 시간에 끌려 사는 태도, 걱정하고 평온한 마음을 못 가지는 생활 등과 연결되어 있다고 합니다.

린치 박사에 의하면, 인간관계에서 빚어지는 정신 상태는 수명에도 연관된다고 합니다. 평균 연령을 다 살지 못한 사람들에 대한 조사에서 사회적 고립, 우정의 결여, 고아로서 혹은 편모편부 밑에서 자란 경우, 갑작

스럽게 사랑하던 대상을 잃은 경력, 유전성 질환의 소유 등이 많음을 발견하였습니다. 그것은 한 마디로 인간관계에서 받는 정신문제가 조기 사망의 원인이 된다는 연구입니다.

사람은 그 마음의 향아리에 무엇을 담고 사느냐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욕심과 탐심을 담고 살면 욕심꾸러기가 될 것입니다. 미움과 증오와 경쟁심을 담고 살면 평화를 깨는 자, 살인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음의 향아리에 물과 같이 깨끗한 양심과 믿음을 담고, 만나와 같은 말솜과 은사, 예수님을 담고, 햇불과 같은 꿈과 정열을 담고, 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합니다.

‘신앙의 해’ 교육자료

제 7절 성령을 믿나이다.



66. 성령은 신자에게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성령과 신자의 관계는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성령에 힘입지 않고서는 아무도 ‘예수님은 주님이시다.’라고 할 수 없습니다”(1코린 12,3). “하느님께서 당신 아드님의 영을 우리 마음 안에 보내 주셨습니다. 그 영께서 ‘아빠! 아버지!’하고 외치고 계십니다”(갈라 4,6). 이러한 신앙의 인식은 성령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그리스도와 만나기 위해서는 먼저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합니다. 우리보다 앞서 오셔서 우리 안에 신앙을 불러일으키시는 분은 성령이십니다. 신앙의 첫 성사인 세례성사를 받음으로써, 성부 안에 근원을 두고 성자 안에서 주어진 ‘생명’은 교회 안에서,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개인적으로 내밀하게 전달됩니다.

67.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있도록 도와주는 분은 누구이십니까?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있도록 도와주는 분은 성령이십니다. 세례는 성자를 통해서, 성령 안에서, 성부에게서 새롭게 태어나는 은총을 우리에게 줍니다. 왜냐하면 하느님의 성령을 지닌 사람은 ‘말씀’, 곧 성자에게 인도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자께서는 그들을 성부께 소개해 주시고, 성부께서는 그들에게 불사불멸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성령 없이는 하느님의 아들을 볼 수 없으며, 성자 없이는 아무도 성부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성부를 아는 것은 성자를 통해서이며 성자를 아는 것은 성령을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가톨릭교회교리서 683항 참조).

- 『저는 믿나이다』, 청주교구 복음화 연구소, 2012 -